

晚唐 詩僧 貫休의 書藝詩와 歷代 詩文을 통해 본 貫休의 書藝*

禹 在 鎬**

<目 次>

I. 서론	IV. 唐代 시인의 시에 투영된 貫休 서예
II. 貫休의 詩歌와 書藝	V. 當代 이후 貫休 서예에 대한 제가의 평가
III. 貫休의 서예시	VI. 결론

I. 서론

佛家 승려의 시가 창작은 東晉에서 시작 되어 唐代에 이르러 최고조에 도달하였다.¹⁾ 특히 中晚唐대에는 불교의 성행에 따라 승려의 수가 많아지면서 詩僧의 시가 창작이 유난히 많았으며, 승려들의 寫經 행위가 보편화되었던 까닭에 書僧 역시 대량으로 등장하였다.²⁾ 이와 동시에 당대의 서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2S1A5A2A0104527312).

** 嶺南大學校 中國言語文化學科 教授

- 1) 覃召文, 《禪月詩魂——中國詩僧縱橫談》(北京: 三聯書店, 1994) 35쪽과 56쪽 참조. 王夫之의 《姜齋詩話》(《清詩話》, 明倫出版社, 臺北, 民國60年) 卷下 45條, “似納子(詩)者, 其源自東晉來.” 임원빈, 《만당 시가와 종교문화》(서울: 학고방, 2015.3) 3장 〈만당 승려의 시가창작〉 165-169쪽 참조.
- 2) 朱關田의 《中國書法史: 隋唐五代卷》(江蘇教育出版社 2014) 209-221쪽, 周小儒·張揚의 《中國歷代僧侶書法》(山東畫報出版社, 2011) 36-71쪽, 田光烈

승으로 이름을 후세에 전하고 있는 많은 승려들이 시가를 창작하였다. 그러나 여러 시승 중에 서승으로 명성이 자자한 이는 드물었고, 마찬가지로 많은 서승 중에 시가로 이름을 날린 이 역시 드물었지만, 당대 승려 중 시가로 명성을 날렸으면서 서예로도 이름을 떨쳐, 특별히 시승과 서승으로 동시에 유명했던 승려는 貫休(法名은 禪月大師)를 유일하게 들 수 있다.

비록 본인의 서예 진적이 현전하면서 후대 시인과 평자들의 시가와 평론이 전해지는 대표적인 서승으로 懷素와 高閑을 들 수 있고, 이들 다음으로 당대를 비롯하여 역대 문인들의 시가와 평론이 비교적 많이 전해지는 서승으로 竝[辯]光 등을 꼽을 수 있지만, 관휴는 시승과 서승으로 모두 유명하면서 본인이 다른 서승의 서예를 노래한 서예시를 창작하고 있음은 물론 다른 문인이 관휴의 서예를 칭송한 시가가 전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특이한 일면을 지니고 있다.³⁾

따라서 본고에서는 당대 서승의 서예시 중에서 관휴가 읊은 서예시와 서승 관휴의 서예를 노래한 당대의 시가 및 당대 이후 역대 문인 평자들

의 《佛法與書法》(佛學對中國傳統書法藝術之影響及追求, 頂淵文化事業有限公司, 民國82) 176-196쪽을 참조하면 문헌이나 비문 등에 기록으로 남아 있는 당대 사경승과 서승의 이름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당대에 명성을 날린 대표적인 서승으로 대략 懷渾, 懷仁, 大雅, 行滿, 湛然, 辯才, 行敦, 知至, 澄觀, 遺則, 智侏, 懷素, 鑒真, 獻上人, 道秀, 玄應, 建初, 高閑[開], 竝[辯]光(廣利), 亞棲, 景雲, 貫休(禪月), 曇域, 夢龜, 文楚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줄고, 〈唐代 書僧의 書藝와 書藝詩〉(《동북아문화연구》 60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9.9)에서 이미 상세히 다루었다.

- 3) 당대 서승을 현전하는 시와 서예를 기준으로 분류해보면, 대체로 본인이 창작한 시가와 서예 작품은 현전하지 않고 《全唐詩》에 수록된 타인의 시문에 이름과 작품명 등이 전해지는 서승이 대다수이지만, 懷素나 高閑처럼 본인이 창작한 서예작품과 唐代 및 당 이후 시인과 평자들의 시가와 평론이 현재까지 전해지는 서승이 있는가 하면, 竝[辯]光과 貫休처럼 본인 필적의 서예작품은 현전하지 않고 《全唐詩》에 당대 시인들의 시가와 당송 이후 평자들의 평론이 남아 있는 서승도 있다. 이에 더하여 貫休나 齊己는 다른 서승의 서예를 읊은 시를 창작하였다는 점이 특별하다고 할 수 있으나, 齊己는 서승으로서의 명성은 크게 전해지지 않는다. 이 점만을 보더라도 관휴의 시승과 서승으로서의 위치가 더욱 특별하다고 할 수 있다.

의 貫休 서예에 대한 평가를 고찰해봄으로써 貫休의 서예에 대해 간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貫休의 진적 서예 작품은 현전하지 않지만, 서예 관련한 貫休의 시와 다른 문인들이 貫休의 서예에 대해 읊은 시가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으므로, 이들 시가 작품과 당대 이후 역대 제가의 貫休 서예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탐색해보고자 한다.

II. 貫休의 詩歌와 書藝

晚唐과 五代에 걸쳐 생존하였던 貫休(832~912)는 속성이 姜氏이고, 婺州의 蘭溪(현재의 浙江省) 사람으로 字가 德隱 혹은 德遠이다. 만당 오대의 혼란했던 시대를 살면서, 7세 때 출가하여 승이 된 이후 81세에 입적하기까지 일생토록 전국 각지를 주유하면서도 절개를 굳게 지키며 엄격한 삶을 영위하였다.⁴⁾ 五代 때 吳越王 錢鏐에게 중임된 적이 있으며, 후에 前蜀을 세워 스스로 황제라 칭했던 王建은 貫休를 특별한 예로 존대하며 그에게 ‘禪月大師’라는 법호를 하사하기도 하였다. 또한 貫休에게는 “물병 하나 바리때 하나 지닌 채 점점 늙어 가는데, 만 줄기 강과 천 개의 산을 넘어 특별히 여기 왔네.(一瓶一鉢垂垂老, 萬水千山得得來.)”라는 시구가 있어,⁵⁾ 사람들은 그를 得得和尚이라고도 칭하였다. 시를 잘 지어 만당 시승 중 皎然과 齊己와 더불어 당대의 三大 詩僧으로 꼽히고 있다.⁶⁾

- 4) 贊寧의 《宋高僧傳》(全2冊, 中華書局, 1987) 권30 〈梁成都府東禪院貫休傳〉, 計有功의 《唐詩紀事》(全6冊, 國學基本叢書, 臺灣商務印書館, 臺北, 1968) 권 75, 辛文房의 《唐才子傳》(임동석 역주, 김영사, 2004) 권10 등 여러 傳記資料에는 貫休의 평생 사적이 대체로 유사하게 기술되어 있고, 오랜 벗 齊己가 貫休 사후 지은 〈형문에서 선월대사의 영정을 모신 사당에 부처 제함(荆門寄題禪月大師影堂)〉(《白蓮集》 권8: 《全唐詩》 권845-50)이란 시에도 貫休 사적이 상당 부분 언급되어 있다.
- 5) 〈속마음을 펼쳐내 축의 황제[王建]에게 바치다(陳情獻蜀皇帝)〉(《全唐詩》 권 835-24) 시의 한 연이다.
- 6) 《全唐詩》에는 詩僧 115인의 시를 수록하고 있고, 이들 승려의 시는 대략 2,800

관휴는 篆隸草에 모두 빼어났으며, 羅漢圖를 잘 그렸다. 특히 서예에 일가를 이루어 사람들은 관휴의 글씨를 ‘姜體’라 칭하였다. 특히 관휴는 唐代에 詩書畫 모두에 빼어난 승려로 이름이 알려져 이미 詩書畫 三絶의 경지를 모두 갖추었으므로, 唐初의 王維 이래 詩書畫 三絶이라 칭해지기에 부족하지 않다고 하겠다. 관휴의 대표적인 서예 작품은 초서 〈常侍帖〉 1점과 〈草書千文〉 6점 및 행서 〈夢遊仙詩〉가 있었다고 하나,⁷⁾ 현재는 회화 〈羅漢圖〉 한 점만 전해지고 있고, 懷素나 高閑의 서예 진적이 현전하는 것과 달리 관휴의 진적 서예작품은 현전하지 않는다.

관휴의 시집은 관휴 생전에 이미 편집되어 10권의 《西嶽集》으로 당나라 昭宗 光化 2년(899년)에 출간되었는데, 吳融의 서문이 있는 이 10권본은 송대 이후 실전되어 현재는 전하지 않는다. 관휴가 죽은 후 그의 제자 曇域이 관휴의 시 천여 수를 편집하여 蜀 乾德 5년(923년)에 30권본 《禪月集》이라 題하여 板刻하였고, 이 판본을 南宋 嘉熙 4년(1240년) 兜率寺의 승려 可璨이 중각하여 널리 전해졌다. 하지만 이 두 가지 판본 모두 현전하지 않기 때문에, 명대 이후에 毛晉이 可璨本을 저본으로 중각한 25권본의 《禪月集》(이를 汲古閣本이라 칭함)이 현전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善本이라 할 수 있다. 비록 善本이기는 하지만 명대 이후 중각한 판본은 모두 이 可璨本을 기본으로 하였으므로, 현재 전하고 있는 관휴의 시가는 《禪月集》에 수록된 720여 수가 전부이다.⁸⁾

여 수에 달한다. 이 중 만당 시승의 시가 2,400여 수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皎然의 시가 7권 480여 수, 貫休의 시가 12권 720여 수, 齊己의 시가 10권 720여 수로, 이 세 시승의 작품이 1,920여 수나 된다. 따라서 이들 세 시승의 시가 당대 전체 시승의 시 중 70% 가량을 점하여 가장 두드러지므로, 시의 수량이나 작품 성취도에 있어 당대 三大 詩僧이라 일러도 무방하다. 覃召文的 《禪月詩魂—中國詩僧縱橫談》(앞의 책) 57-58쪽 참조.

7) 《宣和書譜》(胡小偉·任道斌·王伯敏 等 主編, 《書學集成》(全3冊 中 漢-宋編, 599쪽, 河北美術出版社, 2002.6) 권19, 草書7 “今御府所藏八: 草書常侍帖, [草書]千文六, 行書夢遊仙詩.”와 같이 송나라 御府에는 관휴의 초서 작품 7점과 행서 작품 1점이 소장되어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8) 관휴의 시집 《禪月集》에는 총 701수가 실려 있으나, 補遺에 殘句를 포함하

따라서 본고에서는 毛晉의 汲古閣本을 기본으로 清代에 편찬한 《全唐詩》 권826-837까지 12권에 나누어 수록[《全唐詩》 12권본은 가찬본 25권의 9,10,11권을 한 권으로 합하고, 나머지 각 2권을 1권으로 편집하여 총 12권으로 편집]하고 있는 貫休의 시를 기본 텍스트로 하고자 한다. 아울러 貫休 시가집의 여러 판본의 교감과 箋注 작업까지 포괄적으로 집대성한 현대 연구서인 胡大浚의 《貫休歌詩繫年箋注》와 陸永峰的 《禪月集校注》 두 간본을 함께 참조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⁹⁾

현재 한국의 선행연구 중 貫休 시가를 분석한 논문으로는 임원빈의 〈貫休 詩歌의 內容考察〉이 유일하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貫休 시가가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시가의 내용을 크게 寧靜의 意境表現, 混亂現實의 反映, 邊塞生活에 대한 描寫 등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¹⁰⁾ 이러한 분류는 貫休 시가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개괄해 보았을 때 가장 큰 범주라 할 수 있는 세 분야로 나눈 것이겠으나, 당연히 이 세 분야가 720여수나 되는 貫休 시가의 내용을 모두 담을 수는 없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貫休가 唐代의 대표적인 시승이면서 뛰어난 서승 중의 한 명이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먼저 貫休가 창작한 서예시와 당대 여러 문인들의 시가 중 貫休 서예를 노래한 부분을 추출하여 차례대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Ⅲ. 貫休의 서예시

貫休의 시 720여 수 중에서 한 수 전체적으로 서예에 관한 내용을 담고

여 총 34수를 더 수록하고 있어, 胡大浚의 《貫休歌詩繫年箋注》(全3冊, 中華書局, 2011)와 陸永峰的 《禪月集校注》(巴蜀書社, 2012) 및 임원빈의 《만당 시가와 종교문화》(앞의 책)에서는 총 740여 수라 언급하고 있기도 하다.

9) 貫休 시가집인 《禪月集》의 유전 상황과 판본에 대한 연구는 胡大浚의 《貫休歌詩繫年箋注》(위의 책) 1-4쪽 〈例言〉과 陸永峰的 《禪月集校注》(위의 책) 17-19쪽 〈前言〉에 매우 상세하다.

10) 임원빈, 《만당 시가와 종교문화》(앞의 책) 198-210쪽에 수록되었다.

있어 서예시¹¹⁾로 분류할 수 있는 시는 <천자문을 구하며 노소경에게 올림(上盧少卿覓千文)>(《全唐詩》 권827-36, 《禪月集》 권4: 古風五言)과 <은혜로이 천자문을 써주신 노소경에게 감사하며(謝盧少卿惠千文)>(권827-37, 《禪月集》 권4: 古風五言), <회소 초서를 보고 노래함(觀懷素草書歌)>(권828-32: 《禪月集》 권6: 古風雜言), 그리고 <변광대사의 초서 노래(誓光大師草書歌)>(권837-35: 《禪月集》 권26: 七古) 등 4수를 선별할 수 있었다. 이 외에 범위를 좀 더 넓혀 서예 관련한 내용이 한두 구절이라도 담겨 있는 시를 찾아보면 <산중에서 지음(山中作)>(권828-15: 《禪月集》 권5) 정도를 포함할 수 있다.¹²⁾

먼저 貫休가 동시대에 생존했거나 앞서 생존했던 서승의 서예에 대해 읊은 시를 보자면 회소상인의 초서를 읊은 <회소 초서를 보고 노래함(觀懷素草書歌)>을 가장 전형적인 서예시로 들 수 있다. 이 시는 시 전반에 걸쳐 회소와 회소의 초서를 칭송하고 찬양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張顛顛後顛非顛 장옥이 미친 후 미쳐도 미친 게 아니었는데,
直至懷素之顛始是顛 곧장 회소의 미침에 미쳐서야 비로소 미친 것이라네.

11) 書藝詩란 용어와 범주에 대해서는 졸고, <唐代 書藝詩 試探>(《中語中文學》 제43집, 韓國中語中文學會, 2008.12) 146-148쪽, 참조.

12) 이밖에 서예시라 하긴 어렵지만 서예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문방사보를 읊은 <[기와 모양의] 벼루(硯瓦)>(《全唐詩》 권829-47, 《禪月集》 권8: 五律), <붓(筆)>(권829-49, 《禪月集》 권8: 五律) 등과 같은 시도 연구 대상에 포함시키고, 비록 시의 내용 속에는 서예 관련한 언급이 없지만 <봄 늦게 산가의 벽에 글씨를 쓰다. 두 수(春晚書山家屋壁二首)>(권826-33, 《禪月集》 권2)처럼 관휴가 벽에 키파로 직접 글씨를 쓰면서 시를 써내려가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 시를 포함한다면, 서예 관련한 시는 그 범주가 조금 더 넓어질 수 있을 것이다. <봄 늦게 산가의 벽에 글씨를 쓰다. 두 수> 등과 같이 屋壁, 庵子, 禪院의 벽이나 담장에 題하여 쓴다는 이러한 형식의 詩題는 《禪月集》에 대략 23題 28首 정도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蔣全順의 <釋貫休書法考述>(《中國書法書學[史論]》, 總296期, 2016.12) 97-98쪽에서 비교적 자세하게 다루었지만, 이 시들의 본문에는 서예 관련한 내용이 거의 담겨 있지 않아, 이 시들을 서예시의 범주에 넣기는 어려울 듯하므로, 본고의 1차 연구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고자 한다.

師不譚經不說禪,
 筋力唯于草書朽。
 顛狂却恐是神仙,
 有神助兮人莫及。
 鐵石畫兮墨須入,
 金樽竹葉數斗餘。
 半斜半傾山納濕,
 醉來把筆癡如虎。
 粉壁素屏不問主,
 亂拏亂抹無規矩。
 羅刹石上坐伍子胥,
 削通八字立對漢高祖。
 勢崩騰兮不可止,
 天機暗轉鋒芒裏。
 閃電光邊霹靂飛,
 古柏身中旱龍死。
 駭人心兮目眩暈,
 頓人足兮神辟易。
 乍如沙場大戰後,
 斷槍櫛箭皆狼藉。
 又似深山怪石上,
 古病松枝挂鐵錫。
 玉兔筆,
 天龍墨,
 斜鑿黃金側剉玉,
 珊瑚枝長大如束。
 天馬驕癡不可勒,
 東却西,
 南又北,
 倒又起,
 斷復續。
 忽如鄂公喝住單雄信,
 秦王肩上搭著秦木槩。

스님은 불경도 담론치 않고 참선도 말하지 않고,
 오직 초서만 익히느라 근력이 피폐해졌네.
 미치광이가 겁내는 것은 오히려 신선이지만,
 신선들의 도움 있음이여 사람이 미칠 수 없네.
 철석같이 강한 필획이여 먹물이 딱 들어맞네.
 금 술동이에 죽엽청주가 여러 말 되는데,
 반은 마시고 반은 쏟아서 승복이 젖었네.
 취한 채 붓을 드니 호랑이 같이 사나운데,
 분바른 벽과 흰 병풍 있으면 주인도 따지지 않고,
 멋대로 잡고 마구 칠해 법도도 없는 듯하네.
 오자서가 나찰석 위에 앉아 있는 듯,
 괴룡이 팔자 다리로서서 한 고조를 대하는 듯.
 기세가 오르내림이여 멈출 수가 없는데,
 천기가 날카로운 붓끝에서 검게 바뀌는구나.
 번쩍이는 번갯불 속에 벽력이 날리는 듯,
 측백나무 고목 속에 가뭇 부르는 용이 죽은 듯.
 사람 마음 놀라게 함이여 멍하니 바라보고,
 사람 걸음 멈추게 함이여 정신이 아득하네.
 큰 전쟁이 막 끝난 후의 넓은 모래사장 같이,
 부러진 창과 꺾어진 활이 여기 저기 낭자한 듯.
 마치 깊은 산 속의 기이한 바위 위에 있는 듯,
 말라 병든 술가지에 철석장이 걸려 있는 듯.
 토끼 금빛 털로 만든 붓으로,
 깊은 계곡 소나무로 만든 먹에,
 끌로 가른 황금이요 줄로 간 옥인 듯,
 산호 가지 길게 잘라 크게 묶어 둔 듯,
 천마가 날래고 사나워 고삐 묶어둘 수 없는 듯.
 위로 갔다가는 좌로 가고,
 아래로 갔다가 또 위로 가고,
 뒤집어졌다가 또 일어나고,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지네.
 홀연 악공이 단웅신을 야단쳐 꾸짖는 듯,
 진왕의 어깨 위에 대추나무 창이 얹혀있는 듯.

懷素師,	회소대사여,
懷素師,	회소대사여,
若不是星辰降瑞,	만약 성신이 상서로움 내려준 것 아니라면,
即必是河嶽孕靈。	필히 강산이 신령스러움 길러주신 것이리라.
固宜須冷笑逸少,	원래 왕희지를 냉소하더라도 마땅할 터,
爭得不心醉伯英。	어떻게 장지에게 심취하지 않았으리오.
天台古杉一千尺,	천태산 고목 삼나무가 일천 척이나 되고,
崖崩岸折何崢嶸。	무너지듯 깎아지른 벼랑이 어찌나 험준한지.
或細微,	혹은 아주 세미하여,
仙衣半拆金線垂。	반 갈라진 신선 옷자락에서 흘러내린 금실인 듯,
或妍媚,	혹은 아름답고 고와,
桃花半紅公子醉。	연붉은 복숭아꽃처럼 공자의 취한 얼굴인 듯.
我恐山爲墨兮磨海水,	나는 생각하였네, 산을 먹 삼아 바닷물을 다 갈고,
天與筆兮書大地,	하늘과 함께 붓 잡고 대지에 글을 써야만,
乃能略展狂僧意。	그래야 미친 스님의 뜻을 대략 펼쳐낼 수 있다고.
常恨與師不相識,	대사와 서로 알지 못했음 늘 안타까워하였는데,
一見此書空歎息。	이 글씨 한 번 보자 헛되이 탄식하였다네.
伊昔張渭任華葉季良, ¹³⁾	예전에 장위, 임화, 엽계량 같은,

- 13) 張渭, 任華, 葉季良은 모두 당대의 시인이다. 본 시의 제목 〈회소 초서를 보고 노래함(觀懷素草書歌)〉에서 알 수 있듯, 관휴는 회소의 초서 진적을 보고, 아울러 懷素의 초서를 시로 찬양한 동시대 여러 시인들의 〈회소 초서가(懷素草書歌)〉를 감상한 후 이 시를 지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구에서 언급하고 있는 임화의 시 〈회소 스님의 초서 노래(懷素上人草書歌)〉는 《全唐詩》 권261-3에 수록되어 현전하고 있으나, 장위의 시는 회소의 〈自敘帖〉 원문에 “뱀과 살무사가 신속히 기어가는 기세로 좌중에 들어오는 것 같고, 소나기 내리고 회오리바람 이는 세찬 소리 집에 가득 찬 것 같네(奔蛇走虺勢入座, 驟雨旋風聲滿堂.)”라는 殘句 2구만 전하고 있고, 엽계량의 시는 현재 전하지 않는다. 오히려 李白을 비롯하여 蘇渙·馬雲奇·戴叔倫·王崑·許遙·竇冀·魯收·朱逵 등이 지은 〈草書歌〉 총 14수가 전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줄고, 〈懷素草書와 역대 懷素草書歌에 대하여〉(《中國語文學》 第77輯, 嶺南中國語文學會, 2018.4)에서 자세히 분석하였다. 王琦의 《李太白全集》(全3冊, 中國古典文學基本叢書, 中華書局, 1990, 456-458쪽) 권8 〈草書歌行〉 주석에서는 다른 문헌을 인용하여 “회소에게 시를 기증한 자가 37인이나 되었고, 이들은 모두 당세의 명사였으며, 顏真卿이 서문을 지었다.(贈之歌者三十七人, 皆當世名流, 顏真卿作序.)”라 하고 있으니, 관휴가 생존시 보았을 것으로 여겨지는 〈회소초

數子贈歌豈虛飾,	여러 군자가 시를 지어 드림 어찌 허식이리오,
所不足者渾未曾道著其神力.	부족한 것은 일찍이 그의 신력을 전혀 말하지 않았음이네.
石橋被燒却,	돌로 만든 다리는 불에 다 타도,
良玉土不蝕.	좋은 옥은 본래 부식되지 않는다네.
錐畫沙兮印印泥,	송곳으로 모래에 그은 획같고 도장 찍은 인주 같으니,
世人世人爭得測.	세상 사람 세상 사람들이 어찌 추측할 수 있으리.
知師雄名在世間,	대사의 웅장한 명성 세상에 전해질 것 알겠으니,
明月清風有何極.	명월과 청풍 같은 자연이 어찌 다함이 있으리? ¹⁴⁾

100여년 정도의 생물년 차이가 있긴 하지만¹⁵⁾ 관휴와 회소의 신분은 둘 다 승려였기에, 이 시에서도 승려임을 드러내는 佛經, 參禪, 山衲, 錫杖, 狂僧 등 불교 관련 용어가 곳곳에 사용되었다. 관휴와 회소 모두 초서에 뛰어났고, 예술적 추구와 성취도 매우 비슷하였기 때문에 관휴의 회소에 대한 이해가 남다른 면이 있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아울러 시가에 뛰어났던 관휴는 이 장편의 가행체 초서가에서 매우 많은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였다. 회소의 태연자약하게 운필하는 기색과 자유분방한 자태를 “오 자서가 나찰석 위에 앉아 있는 듯” 하다거나, “괴통이 팔자 다리로 서서 한 고조를 대하는 듯” 하다고 비유한 것, 회소 용필의 굳세고 날카로운 기세와 회소 글씨의 여위고 굳센 필획 및 회소 글씨의 결구와 장법의 변화 무상함을 “번갯불 속에 벽력이 날리는 듯”, “촉백나무 고목 속에 가뭇 부

서가)는 더 많았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하지만 회소 초서를 노래한 현전 唐代 시가는 가행체가 아닌 시를 모두 포함하더라도 14수가 전부이다.

14) 본 시는 즐고, <唐代 草書와 歌行體 草書歌의 상관성>(《中國語文學》 第79輯, 嶺南中國語文學會, 2018.12) 182-186쪽에서 인용한 적 있으나, 본고에서는 번역을 상당 부분 수정하고 해설 부분을 좀 더 보충하여 재인용하였다.

15) 회소는 737~799년 생존하였고 관휴는 832~912년 생존하였으므로, 양자 사이에는 대략 생물년에 100여년의 시간차가 있다. 회소의 생물년에 대해서는 역대 몇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737~799년 생존설이 거의 정설로 굳어져 있다. 회소의 생애에 대해서는 즐고, <懷素 草書와 역대 懷素草書歌에 대하여>(앞의 논문) 7-10쪽 참조.

르는 용이 죽은 듯”, “큰 전쟁이 막 끝난 후의 넓은 모래사장에 부러진 창과 꺾어진 활이 여기 저기 낭자한 듯”, “깊은 산 속 기이한 바위 위 말라 병든 솔가지에 철석장이 걸려 있는 듯”, “끌로 가른 황금이요 줄로 간 옥인 듯, 산호 가지 길게 잘라 크게 묶어 둔 듯, 천마가 날래고 사나워 고삐 묶어둘 수 없는 듯”, “악공이 단웅신을 야단쳐 꾸짖는 듯, 진왕의 어깨 위에 대추나무 창이 얹혀있는 듯” 하다고 형용한 것은 모두 회소 서예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관휴는 회소가 서예상에서 매우 높은 성취를 이룰 수 있었던 까닭은 그가 禪房의 계율을 타파하고 스스로 서예의 規矩를 세웠던 데에 있다고 생각하여 “멋대로 잡고 마구 칠해 법도도 없는 듯하다(亂拏亂抹無規矩)”고 표현하였는데, 이는 집필과 운필 모두 常規를 타파하였다는 의미이다. 바로 이러한 구속받지 않고 자연스러움에 맡기는 자유분방한 운필이어야 입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관휴는 미친 듯 호방함이 진실로 회소의 본색이지만 결코 세밀함과 아름다움도 잃지 않았다고 지적하여, 회소 초서의 성취를 “반 갈라진 신선 옷자락에서 흘러내린 금실인 듯(仙衣半拆金線垂)” 하다가 “복숭아꽃처럼 연붉은 공자의 취한 얼굴인 듯(桃花半紅公子醉)” 하다고 읊었으니, 이것이 바로 다른 시인과 평자들이 관휴의 평가와 분석에 미치지 못하는 바인 것이다. 이 때문에 사람들이 비록 미친 듯 열광적으로 회소의 서예를 찬양하지만 같은 승려이자 서예에서 일가를 이룬 관휴만이 진정으로 회소 예술의 진면목을 더욱 분명하고 철저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하겠다. 회소는 원래부터 세속을 초월하는 신통력을 지니고 있어서, 그가 불후의 초서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개인의 예술적 조예 때문이었지, 사람들의 칭송 때문이 아니었다. 따라서 관휴는 마지막 구절에서 회소가 명성을 만고에 남겨, 불후의 자연인 明月이나 淸風과 같이 영원토록 존재하리라고 예단하였다.

회소의 초서를 노래한 위의 시 이외에 관휴의 대표적인 서예시로 <변광 대사의 초서 노래(悤光大師草書歌)>(《全唐詩》 권837)를 더 들 수 있는데, 이 시에서는 전반부에서 변광의 인품과 시가에 대해 먼저 노래한 이후

연이어 번광의 초서와 행적에 대해 언급하였다.

雪壓千峰橫枕上,
窮困雖多還激壯.
看師逸迹兩相宜,
高適歌行李白詩.
海上驚驅山猛燒,
吹斷狂烟著沙草.
江樓曾見落星石,
幾回試發將軍炮.
別有寒雕掠絕壁,
提上玄猿更生力.
又見吳牛磨角來,
舞槃盤刀初觸擊.
好文天子揮宸翰,
御制本多推玉案.
晨開水殿教題壁,
題罷紫衣親寵錫.
僧家愛詩自拘束,
僧家愛畫亦局促.
唯師草聖藝偏高,
一掬山泉心便足.

눈 덮인 못 봉우리 속에서의 고된 생활이라,
곤궁함 비록 많지만 여전히 격양되고 웅장하네.
대사의 뛰어난 업적 보니 두 가지 다 갖추어,
고적 같은 가행체요 이백의 시처럼 훌륭하네.
바다 위 거센 파도요 사납게 타오르는 산불인 듯,
피어오르는 미친 듯한 연기에 사초가 드러나네.
강가 누각에서 일찍이 떨어지는 운석을 보고,
몇 번이나 장군의 대포를 쏘려 시도했다네.
굼주린 독수리가 깎아지른 절벽을 스쳐나는 듯,
위로 오르는 검은 원숭이가 더욱 힘을 내는 듯.
다시 보니 오 지방 힘센 소가 뿔 같고 오는 듯,
휘날리는 창과 넓은 칼이 처음으로 부딪친 듯.
문장 좋아하시는 천자께서 친히 붓을 잡으시니,
황제가 쓴 글씨 본래 많지만 책상을 미뤄주셨네.
새벽에는 어전을 열어 벽에 시를 쓰게 하시고,
쓰기 마치자 자춧빛 가사 하사하여 총애하시네.
승려가 시를 애호하면 스스로를 구속하게 되고,
승려가 그림 좋아하면 이 역시 움츠러들게 된다네.
대사는 초서의 성인이면서 기에는 더욱 고상한데,
한 움큼 산속 샘물 움켜잡고도 마음만은 흡족하네.¹⁶⁾

16) 《全唐詩》 권634에는司空圖의〈贈誓光〉시의殘句로“看師逸迹兩師宜, 高適歌行李白詩.”를 수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이 시를 사공도의 시로 인용한 논문(李靜月, 〈唐代書韻的書法史料價值研究〉(首都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05년, 58쪽)도 있다. 본고에서 인용한 이 시는《全唐詩》 권837과《禪月集》 권26에 모두 貫休의 시로 전문을 실고 있으며, 대부분의 전적에서도 이 시를 貫休의 시로 소개하고 있으므로, 사공도의 시가 아니고 貫休의 시로 보아야 할 듯하다. 《全唐詩》에는 동일한 시를 두 시인의 시로 중복 수록한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필자가 파악한 몇 가지 경우를 열거해보면 張潮의〈長干行〉(권114), 李白의〈長干行〉二首 중 其二(권163), 李益의〈長干行〉(권283)은 동일한 시가 세 시인의 시로 중복 등재되었고, 王維의〈留別丘爲〉(권126)와 丘爲의〈留別王維〉(권129) 역시 동일한 시인데 이중 수록되었으며, 또 丘爲의〈尋廬山崔徵君〉(권129)과 耿湜의〈夜尋廬處士〉(권268)가 동일한 시이면

관휴는 초서 자체보다 변광의 인품과 행적 및 시가 창작을 찬양하는데 전반부와 후반부의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 당대 후반 柳公權이 “용필은 마음에 달려 있으니, 마음이 바르면 붓도 바르다.(用筆在心, 心正則筆正.)”라고 선언한 후부터 서예 비평가 중 “글씨는 그 사람과 같다.”거나,¹⁷⁾ “글씨는 마음의 그림이다.”라고 하여,¹⁸⁾ 글씨에는 그 사람의 인간됨됨이가 그대로 드러난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서예가는 고상한 인품을 지니고 있어야 훌륭한 작품을 창작할 수 있다는 書論도 등장하였다. 관휴는 이 시에서, 승려인 변광이 비록 곤궁하고 고된 생활을 하였지만 글씨는 오히려 표일하고 호방하여 결코 초라하거나 궁색한 모습이 없었고, 승려였지만 작품은 오히려 예법에 얽매임 없이 자연스러웠고 자유분방했던 것으로 묘사하였다. 시인은 이러한 변광 초서의 운필의 자유분방함과 필획의 기운 생동함을 “굽주린 독수리가 깎아지른 절벽을 스쳐나는 듯”, “위로 오르는 검은 원숭이가 더욱 힘을 내는 듯”, “오 지방 힘센 소가 뿔 같고 오는 듯”, “휘날리는 창과 넓은 칼이 처음으로 부딪치는 듯” 하다고 은유적으로 표현하였다. ‘자줏빛 가사’라는 뜻의 ‘紫衣’는 스님이 입는 최상의 가사이다. 황제가 공격 있는 고승에게 자의를 하사하는 전통은 則天武后 때부터 시작되었는데, 昭宗은 御榻에서 글씨를 쓰게 하고 변광에게 자의를 내려주었으니, 황제로부터 紫衣를 하사받았다는 것은 승려에게 주어진 최고의 영예와 존경의 상징이었다. 이러한 영예와 존경을 한 몸에 받은 변광이었지만, 다른 승려와 달리 스스로는 오히려 “한 움큼 산속 샘물 움켜잡고도 마음만은 흡족하네(一掬山泉心便足)”라는 자연속의 초연한 생활을 여전히 달

서 중복 등재되어 있다. 관휴의 이 시와 司空圖의 〈贈髻光〉시 잔구도 《全唐詩》에 중복 수록되어 있는 경우 중의 하나이다. 이들 시의 眞僞 辨釋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심도 있는 고증과 분석이 필요할 듯하다. 이 시 역시 줄고, 〈唐代 書僧의 書藝와 書藝詩〉(《동북아문화연구》 제60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9.9) 103-104쪽에서 이미 인용한 적이 있으며, 본고에서는 번역을 좀 더 수정 보완하였다.

17) 唐 張彥遠의 《法書要錄》(北京: 人民美術出版社, 2003) 권4 “書者, 如也.”

18) 明 潘之涼의 《書法離鈎》(胡小偉·任道斌·王伯敏 等 主編, 《書學集成》全3冊 中 元-明編, 621쪽, 河北美術出版社, 2002.6) 권2 〈定心〉“書者心畫也.”

가워하였다. ‘샘물을 한 움큼 가득 움켜쥐다’는 표현 하나로 변광의 욕심 없는 고귀한 인품을 그대로 표현하였다. 스님이었던 변광이 물질적인 욕망이 없고 얻고자 하는 세속적인 욕심이 없었다는 것을 시의 마지막 구절에서 형용하였는데, 이는 역시 같은 승려 신분이었던 관휴의 깊이 있고 빼어난 심미안을 잘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관휴는 같은 승려이자 초서가인 변광의 인품과 지고한 정신이 그의 시가와 서예에서 잘 드러나 있음을 파악하여 이를 시에서 비유적으로 표현하였던 것이다.

관휴가 창작한 서예시 중에 특이할 만한 경우는 <노소경에게 올려 천자문을 구함(上盧少卿覓千文)>이란 시이다. 이 시는 <은혜로이 천자문을 써 주신 노소경에게 감사하며(謝盧少卿惠千文)>라는 시와 함께 《全唐詩》에 앞뒤로 실려 있는데, 여기서는 노소경의 인품과 서예의 빼어남을 비유적으로 읊고 있는 앞의 시 한 수만을 인용해본다.

荆山有美玉,	형산에 아름다운 옥이 있으니,
含華尚炳爛	화려함 지녀 늘 밝게 빛나네.
堪爲聖君璽,	기꺼이 성군의 옥쇄가 되고,
堪爲聖君案.	기꺼이 성군의 안석이 되네.
草木潤不凋,	천지간 초목은 윤이나 시들지 않고,
烟霞覆不散.	연화가 덮어 그 빛 흠어지지 않네.
野人到山下,	시골 사람 [관휴] 산 아래 내려와,
仰視星辰畔.	별자리 언저리를 우러러 보네.
儼或如栗黃,	혹여 [제례에 올릴] 간 밤 같은 것을 얻으면,
保之上霄漢.	지녔다가 하늘의 은하수에 올리려네.

盧少卿은 唐代의 관료이자 서예가인 盧知獻를 말한다. 노지유는 당시에 서예로 어느 정도 지명도가 있었다고는 하나, 현전하는 서예사 및 서예 관련 문헌에 기록된 내용으로 판단컨대 서예사에서는 크게 알려져 있지 않은 인물이다. 당송대 문헌 몇 곳에 그의 전기가 간략하게 언급되기도 하지만,¹⁹⁾ 서예사에 한 획을 그은 역대 유명 서예가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고

하긴 어려울 듯하다. 노지유의 서예에 대해 南宋 陳思가 저술한 《書小史》 권10에서는 “노지유의 자는 자모이며, 관직이 태자태사에까지 이르렀다. 도량이 온유둔후하였고 문사가 풍부 미려하였다. 초서와 예서에 뛰어났으며 해서에 법도가 있었다. 간찰을 마무리하여 문장을 보내면 사람들이 다 투어 모방하였다.”라고 기술한 것이 전부인데,²⁰⁾ 당시에 지방장관으로 초서와 예서에 뛰어났으며 해서에 법도가 있었던 노지유에게 관휴는 千字文을 써달라고 부탁하면서 위의 시 한 수, 그리고 친필 천자문 한 편을 받고서는 이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시로 노래하였다.

관휴는 38세 때인 咸通 10년(870년) 겨울부터 40세인 함통 12년까지 鄱陽(지금의 江西省 鄱陽)에 머물렀고,²¹⁾ 이때 노지유 역시 饒州刺史[요주에는 4개의 縣이 속해 있었는데 鄱陽도 그 중 하나였음]로 부임해 있었기에 두 사람이 만날 수 있었다. 당시 두 사람이 서로 唱和한 시가 20여 수에 달하고 있는데, 중년의 승려였던 관휴가 당시 서예로 명성을 날리고 있었던 지방 장관 노지유에게 千字文을 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시에서는 관휴 스스로 산속에 사는 시골 사람이라 칭하며 지방 수령이었던 노지유가 쓴 천자문 진적과 노지유 인품의 빼어남을 더할 수 없이 아름다운 荆山の 美玉 和氏璧에 비유하여 중의적으로 표현하였다.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남조 梁나라의 周興嗣(468~521)가 지은 千字文은 王羲之의 7대손인 隋나라 말 승려 智永이 쓴 진적이 가장 유명하고 후

19) 정확한 생몰년도는 알 수 없으나 僖宗(873~888재위) 년간에 중앙 관리생활을 하였고, 昭宗(888~906재위) 때 사망하였다는 그의 간략한 사적이 《新唐書》(《二十五史》全12册 중 6册), 上海古籍出版社, 1986) 권177, 〈列傳〉 권102 부친인 盧簡能 열전에 함께 수록되어 있다.

20) 南宋 陳思 《書小史》(水采田, 《宋代書論》(中國書畫論叢書), 湖南美術出版社, 2006.11) 권10, 傳9 “盧知獻, 字子謨. 官至太子太師, 器度渾厚, 文詞瞻麗, 工草隸, 有楷法. 落簡飛翰, 人爭摹仿.” 《宣和書譜》(앞의 책, 546쪽) 권10, 行書4에는 좀 더 길게 기록하였으나, 《書小史》와 《宣和書譜》 등 몇몇 문헌 기록은 분량에서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대체로 유사한 기술 양상을 보여준다.

21) 胡大浚, 《貫休歌詩繫年箋注》(앞의 책), 1159~1166쪽 〈禪月大師貫休年譜稿〉 및 270~274쪽 〈上盧使君〉 참조.

세에 많이 알려졌다. 남조 양나라 이후로 한자 학습 혹은 서예 학습서의 모범이 된 천자문은 승려인 隋代 智永의 초서 千字文이 가장 유명하여 널리 보급되면서 역대의 많은 서예가들이 寫作을 하였고, 이러한 전통은 中晩唐의 서승들 특히 회소와 관휴에게까지 미쳤을 것이다. 《宣和書譜》 권19의 기록에 의하면 宋代 御府에 소장된 中晩唐 草書僧의 초서 천자문은 13건에 달하고, 관휴의 초서 천자문이 가장 많은 6점이나 되었다.²²⁾ 관휴의 천자문 초서가 비록 지영의 천자문 초서에는 비교될 바 아니었지만 나름 평범하지 않은 일면이 있었다고 평가되고 있다.²³⁾

관휴는 당시 서예로 명성이 높았던 고관 노지유에게 천자문을 간구하였고, 이후 노지유에게 천자문을 전달받아 감사의 마음을 담은 〈은혜로이 천자문을 써주신 노소경에게 감사하며(謝盧少卿惠千字文)〉(古風雜言)라는 시를 연이어 지어 보냈다. 관휴는 이 시에서도 노소경의 천자문 서예 작품의 빼어남을 비유적으로 묘사하여 “붓 끝에 우리가 가진 [이 세상 삼라만상] 모든 게 다 있네(筆端皆我有)”라고 노소경의 진적 천자문을 극도로 추켜세우고 있다.²⁴⁾

이 밖에 《禪月集》 권5의 〈산중에서 지음(山中作)〉(古風雜言)이란 시

22) 《宣和書譜》(앞의 책, 595-600쪽) 권19 및 蔣全順, 《釋貫休書法考述》(앞의 논문, 96쪽)에는 송나라 궁중 창고인 御府에 僧懷素 1점, 釋亞棲 2점, 釋晳光 1점, 釋貫休 6점, 釋夢龜 2점, 釋文楚 1점 등 당대 초서승의 초서 천자문 총 13점이 소장되어 있다고 하였다. 노지유에게 글씨를 부탁하였던 관휴의 초서 천자문은 송대 어부에 6점이나 소장되어 있었지만, 정작 관휴에게 천자문을 써주었던 노지유의 천자문은 보존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아이러니하다.

23) 《宣和書譜》(앞의 책, 599쪽) 권19, 草書7, 《釋貫休》 “喜書千文, 世多傳其本, 雖不可以比迹智永, 要自不凡.”

24) 胡大浚, 《貫休歌詩繫年箋注》(앞의 책), 234-236쪽. 시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廬山有石鏡, 高倚無塵垢, 晝景分烟蘿, 夜魄侵星斗. 苞含物象列, 搜照魚龍吼. 寄謝天地間, 毫端皆我有.(여산에 돌거울이 있는데, 고상하고 기이하여 티끌 하나 없네. 한낮의 햇빛이 안개 속 무성한 초목을 비추고, 한밤의 달은 별자리까지 침범했네. 천지간 온갖 만물을 다 포용하니, [그윽한 경치 속] 희미한 달빛에 깊이 잠긴 어룡이 보이네. 하늘과 땅 사이에 감사함을 부치노니, [천자문을 쓴] 붓끝에 우리가 가진 [이 세상 삼라만상] 모든 게 다 있네.)”

등을 더 들 수 있으나, 이 시에서 서예 관련한 내용은 자신이 쓴 새로운 시를 붓으로 써내려가니 자신의 글씨가 마치 하늘의 보옥을 펼쳐놓은 듯하다는 단 한 구절뿐이고, 대부분이 시 창작과 관련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²⁵⁾ 관휴가 창작한 서예시는 비록 4수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당대 전체를 통틀어 서예시가 100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4수도 결코 적은 수량이라 할 수는 없을 듯하다.²⁶⁾ 아울러 관휴는 당대의 三大詩僧이란 명칭에 걸맞게 비유와 은유를 잘 활용하여 승려인 회소와 변광의 초서 및 노지유 천자문의 빼어남을 시인의 감성으로 십분 묘사해내었다고 할 수 있다.

IV. 唐代 시인의 시에 투영된 관휴의 서예

관휴의 진적 서예작품이 현전하지 않고 다른 시인들이 관휴의 서예에 대해 읊은 서예시라 할만한 작품이 거의 없기 때문에, 본 장에서는 먼저 당대 시인들이 한 구절이라도 관휴의 서예를 노래한 시들을 추출해내어 이 시들을 대상으로 관휴의 서예에 대해 간접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당대 시인들이 관휴의 서예를 노래한 시는 吳融의 〈선월대사에게 부침

25) 胡大浚, 《貫休歌詩繫年箋注》(앞의 책), 294-295쪽. 시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山爲水精宮, 藉花無塵埃. 吟狂嶽似動, 筆落天瓊瑰. 伊余自樂道, 不論才不才. 有時鬼笑兩三聲, 疑是大謝小謝李白來.(산은 수정으로 된 궁궐[같은 禪房] 이어서, 꽃자리 깔고 앉았으니 티끌 하나 없네. 미친 듯 시 읊조리면 산이 움직이는 듯, 붓으로 글씨 쓰면 하늘의 보옥 펼쳐놓은 듯. 너와 내가 절로 도를 즐기니, 재주가 있고 없고를 따질 것 없다네. 때때로 귀신의 웃음인 양 두세 마디 소리 들리니, 아마도 사령운과 사조와 이백이 찾아온 듯하네.)”

26) 蔡顯良의 〈唐代論書詩研究〉(南京藝術學院 碩士學位論文, 2004.4)와 줄고 《당나라 시인들이 서예를 노래하다(中國唐代書藝詩)》(영남대학교출판부, 2020. 10) 등의 저작에 열거된 당대 서예시 목록을 보면 당대 시인 중 가장 많은 서예시를 남기고 있는 杜甫가 10수, 李白과 柳宗元, 劉禹錫 등이 다음으로 많은 4수 정도 창작한 상황을 볼 때, 관휴가 창작한 서예시 4수도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님을 알 수 있다.

(寄禪月大師)》(《全唐詩》 권684-33: 〈관휴 스님에게 부침(寄貫休上人)〉으로 된 판본도 있음), 黃滔의 〈동림사에 관휴 스님이 전서와 예서로 제한시(東林寺貫休上人篆隸題詩)〉(권706-30), 張格의 〈선월대사에게 부침(寄禪月大師)〉(권760-2), 王鐸의 〈선월대사에게 그림(贈禪月大師)〉(권760-3), 歐陽炯의 〈관휴가 꿈에서 보고 그린 나한도 그림 노래(貫休應夢羅漢畫歌)〉(권761-3: 〈선월대사 노래(禪月大師歌)〉로 된 판본도 있음), 齊己의 〈형주 관휴대사가 살던 방(荊州貫休大師舊房)〉(권844-23) 등 모두 6수를 추출해낼 수 있었다. 그런데 관휴의 서예를 언급한 시들이라 하여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전반적으로 관휴 서예를 찬상하거나 평가한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불교 승려로서 관휴의 일상이나 행적 혹은 시가와 회화 관련한 내용과 함께 덧붙여 서예에 대해 간략하게 다루고 있을 뿐이다. 물론 관휴의 서예에 대해 읊은 내용 대다수가 찬상 기조인 점은 어느 시나 동일하다.

이 시들 중 歐陽炯의 〈관휴가 꿈에서 보고 그린 나한도 그림 노래(貫休應夢羅漢畫歌: 一作禪月大師歌)〉는 관휴가 禪房에서 坐禪을 하다가 꿈속에서 阿羅漢의 진짜 모습을 보고 감응하여 그림으로 그렸다는 〈羅漢圖〉를 노래한 54구 長篇 歌行體인데, 여타의 시에 비해 관휴 서예 관련한 내용이 가장 많이 언급되어 있다. 시 전체적으로 나한도의 형상과 예술 기교를 찬상하고 추송하는 데 집중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관휴 서예를 읊은 부분만을 인용해본다.

西嶽高僧名貫休,
孤情峭拔凌清秋。
天教水墨畫羅漢,
魁岸古容生筆頭。

.....

休公休公,
逸藝無人加,
聲譽喧喧遍海涯。

서악 화산의 고매한 승려 이름이 관휴인데,
고고한 정 우뚝하여 맑은 가을 하늘에 닿았네.
하늘이 수묵으로 아라한을 그리게 하니,
장대하고 기운찬 옛 용모 붓끝에서 살아났네.

.....

관휴 공이여 관휴 공이여,
빼어난 기예는 능가할 사람이 없어,
떠들썩한 명예는 바닷가까지 두루 미쳤네.

五七字句一千首,
大小篆書三十家.
唐朝曆曆多名士,
蕭子雲兼吳道子.
若將書畫比休公,
只恐當時浪生死.
休公休公,
始自江南來入秦,
于今到蜀無交親.
詩名畫手皆奇絕,
觀你凡人爭是人.
.....

오인 칠언 시구가 일천 수나 더 되고,
대전과 소전체 서예 삼십 가 안에 드네.
당나라 조정의 많은 훌륭한 명사들 중에,
서예와 회화로 소자운과 오도자를 곁했네.
만약 서예와 회화를 관휴 공에 비한다면,
단지 당시의 삶이 헛되었을까 걱정되네.
관휴 공이여 관휴 공이여,
강남에서 진 지방으로 들어와서부터,
지금 촉에 이르기까지 친교가 없었다네.
시의 명성과 그림 솜씨 모두 기묘하니,
너희 범인들 어찌 이 사람을 엿보리오.
.....

위에서 인용한 부분은 이 시의 첫 4구와 관휴의 시가와 서예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는 후반부의 일부이다. 54구나 되는 장편 가행체 시인 이 시는 관휴의 阿羅漢圖 회화에 대한 묘사와 찬상이 주가 되는데, 전반부에서 이를 길게 서술한 이후에 서예 관련한 내용을 후반부에서 조금 다루고 있다. 회화에 대한 칭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시가와 서예에 대한 언급은, 회화를 추켜세우기 위한 부수적인 요소, 보조적인 역할만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긴 하지만, 이 시에서 구양형은 관휴가 大篆과 小篆의 명가로서 당나라 篆隸 서예가 중에서는 30가 안에 드는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여 “대전과 소전체 서예 삼십 가 안에 드네.”라고 노래하였다. 아울러 관휴의 서예가 南朝 梁나라의 서예가 蕭子雲에 비견된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소자운이 관휴에 미치지 못할 것 같다고 우려할 정도로 관휴의 서예를 추켜세우고 있다. 소자운은 처음에는 王獻之를 배웠고, 예서는 鍾繇를 배웠으며, 또 小篆을 변형해서 飛白體를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는 초서와 예서에 뛰어났던 梁代의 대서예가였다. 당나라 왕조에는 서예와 회화에 뛰어난 이들이 많지만 서예와 회화에 모두 뛰어나고 이에 더하여 시가까지 빼어난 이로 관휴를 꼽을 수 있다고 하면서, 시의 말미에서 시인은 관휴의 회

화가 범인들이 엿볼 수 없는 최상의 경지에 이르렀으니 인간 세상에서는 첫째라고 극도로 치켜세우고 있다. 이러한 묘사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관휴 나한도의 회화사적 미학적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간접적으로 가늠할 수 있을 듯하다.²⁷⁾

앞에서 인용한 歐陽炯의 시에서 관휴가 소전과 대전의 전서체에 뛰어난 일가를 이루었다는 언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시로 黃滔의 <동림사에서 관휴 스님이 전서와 예서로 제한 시(東林寺貫休上人篆隸題詩)>를 열거할 수 있다. 이 시는 시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 관휴가 동림사에 머물면서 전서와 예서의 친필 목적으로 남겨두었던 관휴의 시를 시인 황도가 직접 보고서 그 감회를 노래한 짧은 절구이다.

師名自越徹秦中,	대사의 명성 월에서 진까지 두루 미쳤지만,
秦越難尋師所從.	진과 월에서도 대사의 종적 찾기 어려웠었네.
墨迹兩般詩一首,	두 가지 서체의 친필 목적 시 한 수 남아 있어,
香爐峯下似相逢.	여산 향로봉 아래서 대사를 직접 만난 듯하네.

비록 이 시의 원문 중에는 서예 관련한 내용이라고 친필 “목적(墨迹)”이란 어휘밖에 없지만, 詩題에 江西省 東林寺에서 관휴 상인이 篆書와 隸書로 題하여 쓴 詩를 보고 느낀 바를 시로 읊었다고 하였으니, 서예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²⁸⁾ 동림사에 있다는 관휴의 진적 글씨는

27) 관휴의 서예와 더불어 관휴 회화 역시 함께 연구할 가치가 있어 보인다. 실제로 현전하는 관휴의 시가를 보면 <觀李翰林眞>, <四皓圖>, <觀地獄圖> 등과 같이 회화 관련한 題畫詩가 서예 관련한 서예시 보다 훨씬 많다. 관휴가 그린 羅漢圖가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고, 당대 歐陽炯과 송대 蘇軾을 비롯하여 송대 이후에도 여러 문인과 승려들이 관휴의 나한도를 題材로 한 詩歌와 讚을 여러 편 남기고 있다. 이러한 관휴의 제화시와 함께 나한도 관련한 시들도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을 듯하지만, 본고의 주제에서는 벗어나므로 일단 논외로 하고, 후일의 연구 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28) 蔡顯良의 <唐代論書詩研究>(앞의 논문)와 줄고 <<당나라 시인들이 서예를 노래하다(中國唐代書藝詩)>>(앞의 책) 등에서는 이 시를 당대 서예시 중 하나로 열거하였는데, 시제만을 보았을 때 서예시의 범주에 포함할 수 있을 듯하나

건물에 부착된 柱聯이나 匾額은 아닐 것이고, 시인이 篆書와 隸書로 題하여 쓴 詩라 하고 있으니, 아마도 건물의 벽이나 담장에 제한 시이거나 종이에 필묵으로 필사한 시일 것이다. 대사의 명성이 남쪽 越에서 서북쪽 秦 지방까지 온 중국에 두루 미치고 있다는 것은 관휴 서예의 예술적 성취가 시가와 회화와 더불어 모두 뛰어나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외에 당대 시인들이 관휴에게 수증한 시에서 관휴의 서예와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만을 인용해보면 다음과 같다.

.....
世上浮沈應念我, 筆端飛動只降君.	세상의 부침 속에서 마땅히 나를 생각하였을 터, 붓끝이 날아 움직여 다만 그대에게 강림하였네.
.....

吳融의 〈寄貫休上人〉(권684-33)

.....
畫成羅漢驚三界, 書似張顛直萬金.	그림은 나한도를 이루어 삼계를 놀래키고, 글씨는 장옥과 흡사하여 만금의 가치라네.
.....

張格 〈寄禪月大師〉(권760-2)

.....
神通力遍恒沙外, 詩句名高八米前.	신통력은 셀 수 없을 만큼 두루 많은 외에, 시구의 명성도 높아 최고 자리에 도달했네.
.....

王鐸 〈贈禪月大師〉(권760-3)

.....
右軍書畫神傳髓,	왕희지 글씨와 그림은 신에게 정수를 받았고,

시의 내용을 살펴본다면 서예시라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다.

康樂文章夢授心. 사령운의 문장은 꿈에서 핵심을 전해받았네.

.....

.....

齊己 <荊州貫休大師舊房>(권844-23)

앞에서 인용한 歐陽炯의 <관휴가 꿈에서 보고 그린 나한도 그림 노래(貫休應夢羅漢畫歌)>가 長篇의 歌行體 시이고, 黃滔의 <동림사에 관휴 스님이 전서와 예서로 제한 시(東林寺貫休上人篆隸題詩)>가 七言絶句일 뿐, 위에서 인용한 시들은 모두 七言律詩이다. 이 시들에서는 한두 구에서 간략하게 관휴 서예에 대해 언급하고 있을 뿐이며, 서예에 대한 내용은 항상 시가 혹은 회화와 대를 이루어 함께 등장한다. 물론 관휴 서예에 대한 찬상은 “관휴의 서예 재능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라거나, 초서 대가인 張旭과 견줄만하여 천금의 가치가 있다거나, 서예를 포함한 신통력이 셀 수 없을 만큼 많다거나, 書聖인 王羲之 서예의 정수를 전수받았다”는 등으로 노래하였으니, 관휴 서예를 천부적으로 하늘로부터 부여받았다거나 전대의 초서 대가인 장욱과 비교한다거나 서성인 왕희지의 계승자라 언급한다는 자체가 관휴 서예의 수준을 최상으로 추켜세우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비록 이러한 표현 자체가 상당히 형식적이고 의례적이라는 인상이 강하지만, 관휴가 하늘로부터 천부적인 재능을 부여받아 시가와 회화뿐만 아니라 서예에 있어서도 당대 최고의 수준에 이를 수 있었다는 점을 대부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시들 외에도 《全唐詩》에는 唐代의 여러 문인들이 관휴에게 和答하거나 寄贈한 시들이 10여 수가 더 있으나,²⁹⁾ 이들 시에는 관휴의 시가나

29) 예를 들면 羅隱의 <선월대사가 보내준 시에 화응하다(和禪月大師見贈)>(권657-22), 吳融의 <관휴에게 부치다(寄貫休)>(권684-36)와 <남쪽으로 가는 도중 지은 일곱 수·관휴 스님을 방문하다(南遷途中作七首·訪貫休上人)>(권686-19), 曹松의 <호분과 함께 앉아 달을 감상하며 관휴 스님이 오기를 기대하였으나 오지 않다(與胡汾坐月期貫休上人不至)>(권716-51), 裴說의 <관휴에게 부치다(寄貫休)>(권720-36), 周彥의 <선월대사에게 부치다(寄禪月大師)>(권760-1), 齊己의 <관휴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聞貫休下世)>(권839-39)와 <관휴에게 부치다(寄貫休)>(권841-2), <형문에서 선월대사의 영정을 모신 사당에

회화는 차치하고 서예와 관련한 내용이 전혀 들어있지 않다. 관휴 서예에 관한 내용을 한 구절이라도 언급한 시들도 관휴의 시가나 회화와 함께 다룬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관휴 서예 진적 작품이 한 점도 전하지 않고 관휴의 서예를 읊은 서예시가 한 수도 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휴 서예를 언급한 당대 문인들의 시가만을 통해 관휴 서예의 특징이나 풍격 등을 유추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다음 장에서는 당대 이후 제가들의 평가를 통해 관휴 서예에 대해 간접적으로 가늠해보고자 한다.

V. 唐代 이후 관휴 서예에 대한 제가의 평가

당대 이후 관휴 서예에 대한 제가의 평가 중 가장 이르고 자세한 언급은 《宣和書譜》에 기재된 내용이다. 작자 미상의 서론서인 이 책에서는 먼저 관휴의 생애와 사적 및 시가와 회화 나한도에 대해 기술하고 후반부에 관휴의草書를 평하여 “글씨는 더욱 기이하고도 독특하였으며, 초서는 더욱 빼어났는데 가파르고 힘준한 형상이 그 사람을 상상해볼 수 있다. 천자문을 즐겨 썼는데 세상에는 필사본이 많이 전하고 있다. 비록 수대 지영의 천자문 필적에는 비견할 수 없지만 절로 평범하지 않은 면이 있었다.”고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다.³⁰⁾ 이 기록을 통해 관휴의 글씨가 얼마나 특이하고 독창적이었는지 그 일단을 엿볼 수 있다.

당대 이후 관휴 서예에 대한 평가는 관휴 단독으로 평가하기보다 일반적으로 懷素, 高閑, 潁光 등 당대 유명 서승의 서예와 함께 대비적으로 거론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평가를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송대 평

부처 제함(荊門寄題禪月大師影堂)>>(권845-50), 修睦의 <관휴 스님에게 부치다(寄貫休上人)>>(권849-28) 등이 있다.

30) 《宣和書譜》(앞의 책) 권19, 草書7, <釋貫休> “作字尤奇崛, 至草書益勝, 巖峻之狀, 可以想見其人. 喜書千文, 世多傳其本, 雖不可以比迹智永, 要自不凡.”

자들의 貫休 초서에 대한 기본 인식은 당대의 서승 중 초서로는 다섯 번째 안에 든다는 것이다. 이 점은 역시 《宣和書譜》에서 僧懷素, 釋亞棲, 釋高閑, 釋晫光, 釋景雲, 釋貫休, 釋夢龜, 釋文楚 등 모두 8명의 당대 초서승을 열거하면서,³¹⁾ 마지막 부분에 “옛날 劉涇이 일찍이 《書話》를 지어 [당대 초서승의 초서를 비교하면서] ‘회소의 초서는 옥에 비유할 수 있고, 변광의 초서는 진주에 비유할 수 있으며, 고한의 초서는 황금에 비유할 수 있고, 貫休는 유리에 비유할 수 있고, 아서는 수정에 비유할 수 있다’고 하였으니, 세상에서는 적절한 비유라고 여겼다.”는 말을 인용한 것에서 그 일단을 파악할 수 있다.³²⁾ 이는 당대의 대표적인 서승 5명을 비유적으로 평가하면서 초서에 가장 뛰어났던 다섯 승려를 비교 나열한 것이다. 오늘날은 비교적 흔한 유리에 貫休의 초서를 비유하였으나, 그 당시에는 옥, 진주, 황금, 유리, 수정 등의 값어치가 서로 상이하였을 것이다. 그 가치에서 경중의 차이가 있다고는 하겠지만, 이들 당대 초서승 5명은 모두 자신만의 독창적인 개성과 남다른 특징이 있음을 이야기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글씨는 더욱 기이하고도 독특하였으며, 초서는 더욱 빼어났는데 가 파르고 험준한 형상이 그 사람을 상상해볼 수 있을 듯하다.”고 한 貫休 草書에 대한 앞의 평가와 연결시켜볼 때, 貫休의 글씨가 얼마나 특이하고 독창적이었는지 그 일단을 엿볼 수 있다.

이후 南宋 陳思(자세한 사적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남송 理宗 연간인 1224~1264년에 관직생활을 하였음)의 《書小史》에서도 당대의 대표적 서승으로 僧懷素, 釋高閑, 釋亞棲, 釋貫休, 釋晫光, 釋洪堰 등 6명을 등재하고 있는데, 貫休에 관한 내용은 매우 간략하여 懷素에 대한 내용에 견주어 보면 10분의 1도 되지 않고, 다른 서승의 서술에 비해도 절반 정도

31) 《宣和書譜》에는 이상 8인의 초서승 이외에 당대 서승으로 권2 篆書에 釋元雅, 권5 正書에 釋曇林, 권11 行書에 釋懷仁, 釋行敦, 釋齊己, 권20 八分書에 釋靈該 등 6인이 더 등재되어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총 14인이 수록되었다.

32) 《宣和書譜》(앞의 책) 권19, 草書7, 〈釋文楚〉 “昔劉涇嘗作書話, 以懷素比玉, 晫光比珠, 高閑比金, 貫休比玻璃, 亞棲比水晶, 世以爲善.” 劉涇의 이 평론은 이후 많은 書論 전적에서 하나의 준칙처럼 여과 없이 그대로 재인용 되고 있다.

에 불과하다.³³⁾ 다른 전적과 달리 釋洪堰을 당대 대표적인 서승으로 함께 나열한 점이 이채롭지만 이들 6명의 서승 중 洪堰은 서예 관련한 시도 전해지지 않고, 亞棲 역시 당대를 통틀어 서예 관련한 시가가 한 수 정도 전하고 있을 정도이다.³⁴⁾ 따라서 《宣和書譜》와 《書小史》에 중복 수록된 당대의 서승은 懷素, 亞棲, 高閑, 璽光, 貫休 등 5명으로 축약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당대 최고의 서승은 마땅히 懷素, 高閑, 璽光, 貫休 등 4명을 꼽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후 明代 楊慎의 《論草書韻會》에서도 초서에 뛰어난 당대 승려 9인을 열거하고 있는데, 회소와 고한, 변광 등을 앞에다 꼽고 관휴 등을 뒤에 나열하고 있다.³⁵⁾ 唐代에 명성을 날렸던 많은 서승 중, 송대 《宣和書譜》에 열거된 당대 서승 8인에 懷仁 한 사람을 더 보태고 있다. 명대 楊慎이 《論草書韻會》에서 거론한 당대 서승 9인 중에 역시 《宣和書譜》와 《書小史》에 동시에 수록된 중복되는 서승은 懷素, 高閑, 亞棲, 璽光, 貫休 등 다섯이므로, 이를 통해 송대와 이후 평자들은 당대의 수많은 서승 가운데 관휴를 포함한 이들 다섯을 일가를 이룬 가장 빼어난 서승으로 꼽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비평가들은 관휴 초서가 隋代의 초서승인 智永과 唐代 懷素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하였고, 때로 고한이나 변광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 평하였다. 이 점은 宋代 葉夢得이 《避暑錄話》에서 “당나라 때는 서예에 뛰어난 승려가 세 명 있었으니 지영, 회소, 고

33) 南宋 陳思가 저술한 《書小史》 권10에 수록된 釋貫休에 관한 내용은 매우 간략하여 “蘭溪人。善歌詩，工草隸，南士皆比之懷素。尤善丹青，多畫佛像。”라는 내용이 전부이다. 이하 서지 사항을 별도로 명기하지 않은 서예 전적은 文淵閣四庫全書 電子版(2007, 上海古籍出版社, 3.0版)에서 인용하였다.

34) 亞棲가 창작한 서예시로 《全唐詩》 권850-10에 〈對御書後一絕〉이란 절구가 수록되어 있으나, 亞棲와 洪堰의 서예와 서예시에 대한 내용은 자세하게 고찰할 길이 없으며, 景雲, 夢龜, 文楚 등도 자세히 고찰할 자료가 거의 없다.

35) 明代 楊慎 《墨池瑣錄》 권3 “釋九人，懷素懷仁高閑亞棲璽光景雲貫休夢龜文楚也。” 이 문장은 청대 錢唐의 학자 倪濤의 《六藝之一錄》 권281에도 〈楊慎論草書韻會〉라는 문장으로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한이다.”라고 초서에 뛰어난 당대 서승을 거론한 평가에서 그대로 드러난다.³⁶⁾ 지영과 회소와 고한을 함께 열거하며 차례대로 이들의 뛰어난 점을 언급하였으나 관휴는 거론조차 하지 않은 것을 보면, 관휴의 초서가 이들 세 초서승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고한과 변광의 초서에 대해서는 명대 陶宗儀의 《書史會要》 등 여러 전적에서 공통적으로 지영이나 회소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 평하고 있으니,³⁷⁾ 관휴의 초서는 지영과 회소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러한 고한이나 변광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상 송대 이후 역대의 여러 평가들의 평가를 종합해보면, 관휴 초서는 수당대 초서승 智永, 懷素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고, 때로는 高閑이나 晳光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거나,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더라도 亞棲에 비견되는 수준으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회소나 고한과는 달리 송 이후에 서예시로 관휴 초서를 칭송한 경우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이러한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듯하다. 따라서 당대 서승을 개관해보면, 관휴 초서는 회소 초서와 같은 최상의 반열에는 오르지 못했고, 고한이나 변광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정도였지만, 당대의 다섯 손가락 안에는 꼽힐 수 있는 일가를 이룬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관휴의 초서 진적이 비록 송대 이후 전해지지 않아 전모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괴이하고도 독특한 풍격을 지닌 서예였기에, 진적이 전해졌었던

36) 葉夢得, 《石林避暑錄話》, “唐僧能書者三人, 智永懷素高閑也.” 명대 張丑의 《清河書畫舫》 권3 上에서도 이 문장은 그대로 인용되고 있다.

37) 《書史會要》 권5 “[高閑]雖未足與智永懷素方駕, 然亦自是一家法, 爲時所稱, 豈一朝一夕之力歟.” 張丑의 《清河書畫舫》 권1 下, “高閑而下, 但可懸之酒肆, 晳光尤可憎惡也.” 등. 이 문장은 明 張丑의 《眞蹟日錄》 권2, 明 汪珂玉의 《珊瑚網》 권21, 明 王世貞의 《弇州四部稿》 권133과 《弇州四部續稿》 권166, 청대 卞永譽의 《式古堂書畫彙考》 권11, 역시 청대 倪濤의 《六藝之一錄》 권8, 권145, 권300에도 유사하거나 같은 내용이 가감없이 그대로 반복 수록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줄고, 〈唐代 書僧의 書藝와 書藝詩〉(앞의 논문) 106-109쪽과 줄고, 〈唐代 書僧 晳光의 書藝와 書藝詩〉(《中國語文學》 第85輯, 嶺南中國語文學會, 2020.12) 23-24쪽 참조.

명대까지는 후인들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VI. 결론

晩唐의 승려 貫休는 당대 승려 중 시가로 명성을 날렸으면서 서예와 회화로도 이름을 떨쳐, 특별히 시승과 서승과 화승으로 동시에 유명했던 유일한 승려였기에 당대 승려 중 가장 특이한 일면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본 고에서는 관휴가 다른 서승의 서예를 노래한 서예시와 당대의 다른 문인들이 관휴의 서예를 노래한 시를 중심으로 관휴의 서예시와 서예에 대해 고찰해보았다.³⁸⁾

현전하는 관휴의 장편 〈초서가〉 두 수와 기타 몇 수의 서예시를 보면 비유적 표현 하나만으로도 詩僧으로서의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당대 여타 문인들이 관휴의 서예를 읊은 시는 서예시라 할 만한 내용을 갖추고 있지 못하였고, 서예에 대한 언급 역시 극히 일부이거나 표현 자체도 비교적 형식적이라는 인상이 강하였지만, 표현 자체는 전대 최고의 서예가인 장욱과 서성 왕희지에 비교하면서 최상의 예우를 갖추고 있었다. 송대 이후 관휴 평가에 있어서도 시가와 회화에 관한 내용은 매우 많지만 서예에 관한 평가는 소략했던 이유가 시가와 회화는 송대 이후 여전히 유전되었음에 비해 서예 진적은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회소, 고한, 변광의 서예에 비해 관휴 서예에 대한 후대 제가의 평가 역시 상당히 소략한 면이 있다. 회소와 고한, 변광과 달리 송 이후에 관휴 서예를 칭송한 서예시 역시 거의 보이지 않는 것도 관휴의 서예 진적 작품이

38) 필자의 본래 의도는 관휴의 서예를 노래한 서예시와 관휴 서예 진적의 대비를 통해 관휴 서예시 및 관휴 서예의 특징과 풍격 등을 유추해보는 것이었지만, 오늘날 관휴의 서예 진적이 한 점도 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당대와 이후 문인들이 관휴 서예를 언급한 제한된 시문만을 가지고 간접적으로 관휴 서예를 고찰해볼 수밖에 없었으므로, 분석 자체가 여의치 않았다는 한계를 지닌다.

전해지지 않았던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관휴가 생존했던 시기가 극도로 혼란했던 만당 오대였기에 그의 진적 서예 작품이 송대 이후 거의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다른 하나는 그의 시가와 회화의 유명도에 비해 서예는 이의 명성에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관휴의 글씨는 기이하고도 독특하였으며, 초서는 더욱 빼어났는데 가파르고 힘준한 형상이 그 사람을 상상해볼 수 있다고 언급한 송대의 몇몇 서론서의 평가를 볼 때, 여타의 서승과는 차별화된 관휴 서예의 괴이하고 독창적인 특성은 분명 있었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들이 회소, 고한, 변광, 아서 등과 함께 당대의 가장 뛰어난 다섯 서승의 반열에 자리할 수 있게 하였을 것이다.

< 참고문헌 >

- 우재호, 《당나라 시인들이 서예를 노래하다(中國唐代書藝詩)》, 경산: 영남대학교출판부, 2020.
- 임동석 해제·역주, 《唐才子傳》, 서울: 김영사, 2004.
- 임원빈, 《만당 시가와 종교문화》, 서울: 학고방, 2015.
- 計有功, 《唐詩紀事》(全6冊, 國學基本叢書), 臺北: 商務印書館, 民國79年.
- 覃召文, 《禪月詩魂—中國詩僧縱橫談》, 北京: 三聯書店, 1994.
- 文淵閣四庫全書 電子版,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3.0版, 2007.
- 水采田, 《宋代書論》(中國書畫論叢書), 長沙: 湖南美術出版社, 2006.
- 《新唐書》(《二十五史》全12冊 중 6冊),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6.
- 王 琦, 《李太白全集》(全3冊, 古典文學基本叢書), 北京: 中華書局, 1990.
- 王夫之, 《姜齋詩話》(《清詩話》), 臺北: 明倫出版社, 民國60年.
- 陸永峰, 《禪月集校注》, 成都: 巴蜀書社, 2012.
- 張彥遠, 《法書要錄》, 北京: 人民美術出版社, 2003.

- 《全唐詩(上·下)》，臺北：臺灣 宏業書局，再版 民國71年。
- 田光烈，〈佛法與書法〉(佛學對中國傳統書法藝術之影響及追求)，臺北：頂淵文化事業有限公司，民國82。
- 周小儒·張揚，〈中國歷代僧侶書法〉，濟南：山東畫報出版社，2011。
- 朱關田，〈中國書法史：隋唐五代卷〉4刷，蘇州：江蘇教育出版社，2014。
- 贊寧 撰，〈宋高僧傳〉(全3冊)，北京：中華書局，1987。
- 胡大浚，〈貫休歌詩繫年箋注〉(全3冊)，北京：中華書局，2011。
- 胡小偉·任道斌·王伯敏 等 主編，〈書學集成〉(全3冊)，石家莊：河北美術出版社，2002。
- 우재호，〈唐代 書藝詩 試探〉，〈中語中文學〉 제43집，韓國中語中文學會，2008.12。
- _____，〈懷素 草書와 역대 懷素草書歌에 대하여〉，〈中國語文學〉 第77輯，嶺南中國語文學會，2018.04。
- _____，〈唐代 草書와 歌行體 草書歌의 상관성〉，〈中國語文學〉 第79輯，嶺南中國語文學會，2018.12。
- _____，〈唐代 書僧의 書藝와 書藝詩〉，〈동북아문화연구〉 제60집，동북아시아문화학회，2019.09。
- _____，〈唐代 書僧 鑒光의 書藝와 書藝詩〉，〈中國語文學〉 第85輯，嶺南中國語文學會，2020.12。
- 呂婷婷，〈中晚唐書僧文學研究〉，濟南大學 碩士論文，2015。
- 李靜月，〈唐代書詩的書法史料價值研究〉，首都師範大學 碩士論文，2005。
- 蔣全順，〈釋貫休書法考述〉，中國書法書學[史論]，總296期，2016.12。
- 蔡顯良，〈唐代論書詩研究〉，南京藝術學院 碩士學位論文，2004。

<Abstract>

Among Tang dynasty Buddhist monks, Guanxiu(Buddhist title is Chanyue禪月) is the only monk who made a reputation for poetry and also made a name for calligraphy, especially for monk poet and monk calligrapher. Guanxiu is famous for both monk poet and monk calligrapher, and has the most unusual aspect in that he is creating calligraphy poems that sings the calligraphy of another buddhist monk calligrapher as well as poems that others praised. Therefore,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consider the calligraphy poetry recited by Guanxiu among Tang dynasty calligraphy poems, poems of Tang dynasty that evaluated Guanxiu's calligraphy, and subsequent evaluations of Guanxiu's calligraphy.

Since Guanxiu's authentic calligraphy works are not present, this paper aims to make the poems in which Guanxiu's calligraphy poems and Tang Dynasty poets sang at least one verse of Guanxiu's calligraphy as the primary research subject. Among the 720 poems of Guanxiu, a total of four poems related to calligraphy are handed down. Tang Dynasty poets mentioned Guanxiu's calligraphy at least one verse, six numbers were found. Summarizing the evaluations of various critics since the Song Dynasty, it can be seen that Guanxiu's The Cursive script is far below Huaisu(懷素), and sometimes less than Gaoxian(高閑) or Bianguang(髣光), or more positively, it is evaluated as a level that reaches the level of Yaqi(亞棲). Therefore, if you look at the Tang Dynasty's The Cursive script monk calligrapher, Guanxiu's The Cursive script did not reach the top ranks like Huaisu's calligraphy, and fell short of Gaoxian or Bianguang's, or similar to Yaqi's, it can be evaluated as one of the five

best of the time. Guanxiu's handwriting was both bizarre and unique, with cursive characters that were even more exceptional.

Key Words : 관휴(Guanxiu), 시승(Monk Poet), 서예(Calligraphy), 서승(Monk Calligrapher), 서예시(Calligraphy Poems)